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새 세기 경제강국건설에서 청년들이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이끄신 불멸의 령도

김 경 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청년들은 당의 믿음과 사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혁명의 계승자, 선봉대, 돌격대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합니다.》(《김정일선집》 제20권 증보판 263~264페이지)

혁명령도의 전기간 언제나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청년들의 선봉적역할에 대하여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경제강국건설이 전면에서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청년들이 내나라, 내 조국을 인민의 락원으로 꾸리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새 세기 경제강국건설에서 청년들이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이끄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청년들이 경제강국건설의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이끌어주신것이다.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는데 청년들의 긍지와 자랑이 있으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는데 그들의 참된 삶의 보람과 가치가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우리 청년들이 맨손으로 청년영웅도로를 훌륭하게 건설하여놓은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어렵고 힘든 전선에 제일 먼저 달려나가 돌파구를 열어제김으로써 조선헌청년의 영웅적기개와 본때를 보여주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어렵고 힘든 발전

소건설을 청년들에게 맡겨주시고 전선시찰의 길에서도 청년들이 용맹을 떨치며 일하는 발전소건설장들을 찾으시여 그들의 영웅적투쟁을 높이 평가해주시였으며 보다 큰 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뜨겁게 고무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백암지구에 수력발전소를 일떠세울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주체93(2004)년 6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을 청년동맹에서 맡아할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주시였다. 그리고 발전소명칭을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라고 뜻깊게 달아주시고 청년동맹이 청년들속에서 조직정치사업을 강화하여 강력한 건설력량을 꾸리고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우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취해주신 조치에 따라 짧은 기간에 전국적으로 수천명의 청년들이 청년돌격대를 조직하고 발전소건설전투에 진입하였다.

그러나 발전소건설은 처음부터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진행되였다. 한해치고 눈이 녹는 계절이 6개월밖에 안되고 최고 -30°C를 오르내리는 강추위속에서 일하는것도 힘든것이지만 제일 큰 난관은 발전소에 필요한 자재, 설비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있는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하여 주체93(2004)년부터 주체99(2010)년 10월까지의 기간에만도 수백차례의 말씀과 지시를 주시였다. 뿐만아니라 발전소건설에서 발휘한 청년들의 소행을 보고받으실 때마다 참 좋은 청년들이라고 하시면서 그들

에게 높은 국가수훈과 조선로동당원의 고귀한 영예를 안겨주시었으며 혁명동지를 구원하고 희생된 평양시의 한 평범한 돌격대원을 온 나라가 알도록 내세워주시고 그가 속해있던 소대를 그의 이름을 달아 부르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주체95(2006)년 1월 력사적인 중국방문의 나날에는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을 생각하시며 그들에게 새 솜옷을 보내줄데 대한 말씀을 주시고 눈때문에 길이 막혀질수도 있고 늦어질수도 있으니 비행기로 보내주도록 하는 은정깊은 사랑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취해주시는 혁명적인 조치와 은정깊은 사랑에 끝없이 고무된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모진 추위와 난관을 이겨내고 부족되는 자재와 물자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나가면서 결사전을 벌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99(2010)년 5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여 자기의 청춘을 바쳐가고있는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도도를 받아안은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의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은 더 높은 건설성으로 보답할 일념을 안고 힘찬 돌격전을 벌려 주체99(2010)년 12월에 1호발전소의 조기조업을 보장하였다.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를 풀고 경제강국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놓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을 받들고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건설자들만이 아니라 온 나라의 청년들이 이르는 곳마다에 발전소들을 일떠세웠다.

함경남도안의 청년들은 청년돌격대를 못고 모든것이 부족한 속에서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금진강2호청년발전소와 금진강3호청년발전소를 훌륭히 건설

하였으며 평안북도의 청년들은 태천3호, 4호청년발전소를 건설하면서 태천의 기상을 창조하였다. 이와 함께 강원도와 함경북도, 황해북도의 청년들은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하여 원산청년발전소와 어랑천발전소, 레성강발전소건설에서 돌파구를 열어놓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탄광, 광산들에 적극 진출하여 증산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90(2001)년부터 청년동맹에서 8.28청년돌격대 한개 러단을 파견하여 검덕의 청년광부들을 힘있게 고무하고 광물생산에 기여하도록 하시였다.

검덕광업연합기업소에 달려나간 청년돌격대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높은 광물생산증산으로 보답할 하나의 생각으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열한 돌격전을 벌려 매해 광물생산계획을 120%이상 넘쳐 수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탄광들에도 청년돌격대를 파견하여 석탄증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기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고 8.28청년돌격대원들은 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의 탄광들에 나가 석탄증산의 불길을 높여 나라의 긴장한 석탄문제를 푸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그들은 갱막장안에 《하루계획을 수행하기 전에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보지 말자》라는 구호를 써붙이고 광차가 고장났을 때에는 석탄을 마대에 넣고 《적기가》를 부르면서 운반하였으며 선진적인 발파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매월 계획을 200%이상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석탄증산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친 청년탄부들의 투쟁에 대하여 널리 소개선전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돌려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96(2007)년 7월 송남청년탄광개발 50돐을 맞으며 탄광로동자문화회관에서 중앙과 도의 간부들이 참가한 가운데 기념보고회를 성대하게 진행하도록 하시였으며 석탄증산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청년탄부들의 성과와 경험을 널리 소개선전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우리의 청년들은 발전소건설장과 탄광, 광산들만이 아니라 물길공사를 비롯한 경제강국건설의 어렵고 힘든 부문들에 적극 달려나가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새 세기 경제강국건설에서 청년들이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이끄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청년들이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려는 우리 당의 구상을 실현하는데서 앞장서도록 하신것이다.

우리 혁명의 가장 준엄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사회주의수호전을 승리로 이끄시는 속에서도 언제나 인민생활문제에 가장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새 세기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청년들이 앞장에 서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새 세기 경제강국건설의 휘황한 구상을 펼치시고 경공업부문 공장, 기업소들을 현대화하며 인민소비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청년들이 선봉대, 돌격대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특히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들이 주체98(2009)년 150일전투와 100일전투에서 경공업공장들의 현대화를 다그치며 인민소비품의 가지수와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우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150일전투와 100

일전투기간 경공업부문 청년동맹조직들에서 경공업공장들과 지방산업공장들의 기술개건을 다그치고 이미 마련된 생산잠재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생활필수품과 인민소비품계획을 초과수행하기 위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그리고 청년동맹조직들에서 걸린 문제를 풀고 생산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청년돌격대활동을 활발히 진행할데 대한 과업을 밝혀주시였다.

청년동맹에서는 청년들을 150일전투와 100일전투에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계획서를 토의하고 경공업공장들의 현대화를 다그치며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으로 청년들을 불러일으키였다.

그리하여 전투기간 수많은 경공업부문 공장, 기업소의 청년들이 사회주의경쟁에 참가하여 경공업제품생산공정의 CNC화를 실현하고 설비들을 현대화하였으며 청년돌격대활동을 활발히 벌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들은 경공업부문에서 집단적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높이려는 당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청년들이 당의 농업혁명방침관철에서 앞장서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90(2001)년 3월을 비롯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청년동맹조직들에서 청년들을 농업생산투쟁의 앞장에 서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농촌청년동맹조직들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선전활동을 벌림으로써 그들이 새해 영농전투에서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우도록 고무추동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농촌청년분조, 청

년작업반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도록 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97(2008)년 12월 사리원미곡협동농장 청년작업반을 찾으시여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관철하는데서 이룩한 그들의 투쟁성과를 높이 치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후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청년작업반의 모범을 따라배워 농촌청년분조, 청년작업반운동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한 중요한 대책을 세워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렇듯 현명한 령도와 따뜻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농촌청년분조, 청년작업반운동은 날이 갈수록 커다란 생활력이 발휘되게 되었으며 결과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영예롭고 보람찬 투쟁에서 청년들의 선봉적역할은 더욱 높아졌다.

새 세기 경제강국건설에서 청년들이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이끄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청년들이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관철하는데서 선봉적역할을 하도록 하신것이다.

과학기술은 강성국가건설의 3대기둥의 하나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청년들이 첨단과학기술을 소유하고 인민경제의 현대화와 생산장성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시었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서 청년들속에서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하고 생산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적극 일반화하고 평가해주도록 조치를 취해주신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90(2001)년 6월을 비롯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청년동맹에서 청년들속에서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하고 생산에 도입하는 과정에 이룩된 성

과들을 적극 일반화하고 평가해줄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청년동맹에서는 주체90(2001)년부터 매해 청년절을 계기로 전국과학기술성과 전시회를 열고 청년들이 출품한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자료들을 전시하고 경험토론회를 조직하였다.

전시회와 경험토론회에는 가치있는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수천수만점의 정밀기술제품들이 출품되어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주체99(2010)년 8월에 있는 청년절경축 전국청년과학기술성과전시회에는 3천여점의 가치있는 발명 및 새 기술제품들이 출품되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에 의하여 진행된 과학기술전시회들은 청년들이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첨단과학기술을 소유하고 인민경제의 현대화와 생산장성을 위한 투쟁에서 선봉적역할을 하도록 하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청년과학자, 기술자들이 강성국가건설위업수행에서 자기의 창조적지혜와 재능을 남김없이 바쳐나가도록 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의 경제와 과학기술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실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온 나라의 공장, 기업소들을 현지도하실 때마다 청년과학자, 기술자들을 만나주시고 세계를 디디고 올라설 방도를 환히 가르쳐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과 원대한 구상을 심장깊이 새겨안은 청년과학자, 기술자들은 불타는 열정과 지혜를 바쳐 최첨단과학기술의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벌렸으며 놀라운 과학연구성과를 내놓아 세인을 경탄시켰다.

우리의 청년과학자들은 우리 식 CNC기

술을 개척하여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함으로써 위대한 장군님께 크나큰 기쁨을 드리였다.

그리고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청년과학자, 기술자들은 불굴의 담력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금속공업에서 첨단과학기술의 정수로 불리우는 초고전력전기로틀 짧은 기간에 일떠세우는데 크게 기여하고 온 나라에 혁명적대고조의 열풍을 일으켰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청년

과학자, 기술자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을 지니시고 최첨단돌파전의 앞장에 내세워주시였기에 온 나라에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 사회주의강성국가의 휘황한 미래가 펼쳐진것이다.

우리의 청년들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투쟁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 조선청년의 기개와 위용을 남김없이 펼쳐야 할것이다.